

소련의 유산: 이슬람과 민족주의의 균형, 그리고 더딘 민주화

신범식 역음,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현재: 정치·사회·경제적 선택』(진인진, 2020)을 읽고

정재원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I. 서론

과학기술혁명과 정보화혁명을 넘어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이 유행할 정도로 정보와 지식에 있어서 어떤 한계도 다 뛰어넘은 것 같은 이 시대에조차 우리는 여전히 세계와 사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소련이 해체되고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옛 소련 지역 유라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를 겪었던 지역이자 ‘이슬람’ 문명권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겹쳐져 있는 중앙아시아는 이 두 개념이 유독 낯설거나 거북한 우리에게 한층 더 이해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지역 자체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석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대안 지역, 고려인들의 삶의 터전,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 신 거대 게임 속 지정학적 핵심 지역 등 이미 이 지역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국익 중심적 논의 속에서 에너지 수급 대안 지역이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서 실물경제적 차원의 요구들은 학문적 연구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향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중앙아시아 지역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세분화되고 미시적인 연구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시도를 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서론에서 강대국들 간 충돌의 전략적 요충지, 교역과 자원의 교역의 중심지로서 기회와 도전의 공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등등 여전히 거대 담론에 입각한 중앙아시아 지역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는 단지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서언이라고 이해해도 될 만큼 본 내용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주제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중앙아시아 지역 이슬람을 선정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세밀하게 그 관계들을 살펴본 것은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에서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에서의 지역연구는 이론에 바탕을 둔 법칙정립적 연구보다는 현상기술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 간의 긴장 관계에 있어서도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온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초기 체제전환기 국가 연구부터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가령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시장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은 신자유주의에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치열하게 벌여졌어야 할 비판적 이론적 논쟁보다는 체제의 전환의 여러 측면들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연구가 압도적 다수를 이루었다. 그 이후에 신생 국가들이 건설이 되는 과정에서조차 다른 해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담론이나 역동적이고 진보적인 변화의 양상이 약한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현상기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여 왔다.

본서는 이러한 기존의 지역연구의 경향을 딛고 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서의 사회과학적 글들은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나 비교연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연구를 한 단계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슬람이라는 요소를 기존의 서구식 접근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연 특정 이론에 입각하거나 여러 접근법들의 성과를 종합하여 성공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제대로 탐구했는지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이슬람을 현대의 여러 문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 나가려는 시도는 너무나 시의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IS로 상징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급진적 이슬람의 대두와 연이은 테러 등으로 인해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기반한 정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현재,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왜곡되거나 편향되지 않은 시선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아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에 근거한 글들을 잘 정리한 본서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II. 이슬람과 정치: 새로운 발견과 법치정립적 연구의 시도

책의 서장에서 밝혔듯이, 여러 다양한 차이로 인해 이슬람은 하나가 아니고 매우 다양한 이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중동 지역에 비해 늦게 이슬람을 받아들인 시기와 정주문명과 유목문명 간의 차이에서 오는 신실함의 정도, 그리고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독특한 세속주의적 경향 등도 타 이슬람 문화권들과의 차이는 물론 지역 내 차이도 크게 만들었다. 본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 지역 이슬람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다양한 분과 학문별로 각양각색의 주제의 논문들임에도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낸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이자 이 책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새로운 발견은 바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민족주의와 강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제 민족들이 왜 IS나 탈레반 등 전 지구적인 이슬람 급진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의 흐름으로부터는 일정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종교와 민족주의 간의 관계이다. 급진주의에 대한 부정 이전에 이란의 시아파는 종파가 다른 이 지역에서 확산되기 어려웠고, 아랍 지역 국가들이나 파키스탄 등의 수니파 범이슬람주의도 침투하기 어려웠으며, 상대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았던 범투르크주의도 좌

초했던 이유는 바로 각 민족 단위의 민족주의였다.

소련 시대에 비로소 만들어진 민족과 민족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소련 시절 러시아화에도 연관성을 갖는 소비에트화에 의해 억압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식민지화와는 질적으로 달랐던 소비에트화는 민족적인 것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철저히 억압하지는 않아 소련 시대 내내 그러한 흐름이 단절되지는 않았다. 또한 소련 말기에 일어났던 반소분리독립운동이 단순히 민족국가건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공산주의적 (자유)민주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니 저항 이데올로기서의 이슬람주의, 특히 급진적 혹은 보수적 이슬람주의 운동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민족 문화의 부활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와 이슬람이 민족적 틀 안에서 융해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점차 반공산 저항 세력들 중 자유주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이 강화되면서 이슬람주의자들의 결집이 강해졌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의 급진적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등에 업은 정권의 탄압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한 민족주의적 수사의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의 탈환이었다. 시기적으로 뒤늦은 이슬람 전파, 유목 지역에서의 약한 이슬람 영향, 자디디즘과 같은 개혁적 이슬람의 전통, 그리고 소비에트의 경험 등 여러 원인들이 이러한 경향을 낳았겠지만,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장인 “탈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의 국민국가 건설과 이슬람”에서 신범식 교수는 신생 독립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탈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의 이슬람의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했다. 특히 그는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론에 입각하여 우즈베키스탄 초대 대통령인 카리모프의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슬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카리모프는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 형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문화적 기반으로서의 이슬람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급진적인 이슬람이 가지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 이슬람 국가 건설의 위험은 막으면서 정치사회적 안정화의 도구로 이슬람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카리모프는 이슬람의 정치화뿐 아니라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기능도 일정 정도 제한함으로써 이슬람이 민주화와 연결되는 것을 견제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로서의 이슬람 대신 국가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 이념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슬람적 요소를 세속적 국가주의 이념인 ‘마나비야트’로 통합해냄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안정과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국민정체성을 위해서는 이슬람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에 다른 형태를 덧씌움으로써 ‘마나비야트’라는 형식을 가진 국민교육을 통해 국민정체성을 형성하는 관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종교로서의 이슬람 대신 국가주의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발명함으로써 이슬람의 급진화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억누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발견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전략은 사실 우즈베키스탄 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전략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 내 세속 독재 국가들에서 실행되었던 것이었다. 즉 터키식의 자유민주주의식이든 이집트식의 군부 독재를 포함한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그리고 한때의 시리아-이라크 등지의 바트당 식의 사회주의적 경향의 세속 독재들 간에 이들의 민족주의는 단순히 이슬람주의의 저항을 막기 위한 독재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만 작동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심지어 신정 국가체제인 이란조차 민족주의적 수사가 이슬람주의적 수사를 압도하는 경우도 잦다.

이렇게 사회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던 민족주의적 수사와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결합이 마찬가지로 역시 사회에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던 이슬람적 수사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적으로 작동한 예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는 물론 타타르스탄 등 러시아 내 이슬람 지역 공화국들에서, 심지어 타지키스탄 내전에서도 작동한 바 있었다. 즉 이슬람 반군의 온건화와 친공산 정부군의 후신 세력들의 민족주의 수사의 차용 등 모두 이러한 틀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나비야트’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민족주의적 동원은 강력한 억제 기제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2장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부의 이슬람 정책: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은 1장 논문과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를 할 수 있다.

2장에서 이선우 교수는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이슬람 정책 변화 및 그 정치적 원인과 경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저자는 신범식 교수가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카리모프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공인 이슬람을 통해 무슬림들을 비정치화시키는 한편, 소수의 비공인 이슬람을 통제하고 급진주의자들을 탄압함으로써 정치적 이슬람의 거점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성을 내포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혹은 씨족 파벌들의 영향력을 극복할 의도하에서 카리모프는 이러한 이중적 이슬람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여 종교 균열을 우즈베키스탄의 주된 정치적 균열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카리모프는 온건 이슬람과 소비에트적 세속주의의 영향하에서 이슬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을 통한 급진주의 세력의 저항을 유도하여 다수의 온건한 생활 무슬림들로 하여금 이들을 ‘와하비’ 혹은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도록 관심의 전환을 일으켰다. 이후 테러로 인한 계산된 비상시국과 안디잔 사태를 거치면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을 국가안보의 수호자임을 각인시키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씨족 파벌들은 대통령과의 권력경쟁에서 점차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통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이슬람과 1인 독재체제구축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독재체제구축을 위해 이슬람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카리모프가 씨족 지역 파벌의 붕괴를 굳이 리스크가 큰 이슬람의 적대화를 통해, 즉 이중의 위협성을 감내하고 친족 중심 독재 체제 구축 계획을 세워 실천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일반 대중의 이슬람에 대한 신심이 강하지 않아서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 카리모프의 일련의 기획에 동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의 대다수가 온건한 이슬람 수피즘이나 하나피파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주장도 현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실제로 그러한 영향 하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큰 상황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3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이슬람정책 변화와 그 정치적

요인들: 선거 권위주의 체제로의 진화와 지구적 ‘테러와의 전쟁’을 중심으로”에서 이선우 교수는 이번에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정권의 이슬람 정책 변화 및 그 정치적 요인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정권은 독립 초기에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매우 온건한 대 이슬람 정책을 펼쳤으나 2000년대 초중반 이후 급격하게 억압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전환의 이유로 급진 이슬람의 실제적 위협의 증대와 당시 정부가 처해 있던 대내적, 대외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저자에 따르면, 먼저 급진 이슬람의 위협 증대는 나자르바예프 정부로 하여금 대 이슬람 강경정책 기조로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 러시아계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민족주의 성향의 선거 권위주의 체제까지 구축되자 이전과는 달리 강력한 통제적 이슬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또한 9·11 테러 이후 전 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구축된 전략적 협력관계와 다수의 지역 내 다자안보협력기구들을 통한 공동의 대 테러 정책 플랫폼 형성 역시 이슬람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정치적 기회가 되었다.

기회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경우 이 논문은 그 틀에 맞추어 잘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설명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와는 달리,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의 경우에는 이슬람과 독재체제 구축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슬람 탄압 정책의 강화 자체의 설명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는데, 사실 본 논문의 설명만으로는 이슬람 탄압의 계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한 탄압정책으로의 선회에 대한 실질적 설명이 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자르바예프의 강력한 이슬람 탄압 정책과 민족주의적 선거 권위주의체제 강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도 민족주의적 수사를 바탕으로 한 대중 세뇌 논리에 입각한 설명은 매우 흥미롭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영역에서의 두 국가에서의 권위주의 정권의 이슬람 탄압의 이유나 과정을 독자적인 접근법적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매우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자료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관심전환이론이나 선거권위주의론과 관련된 틀들을 가져와 분석하려는 시도는 향후 이 지역연구의 새로운 경향들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III. 이슬람과 사회: 비교연구의 시도와 미시사회학

2부에서는 중앙아시아 사회에 뿌리 내린 이슬람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그중 4장과 5장은 한 저자의 논문이기는 하지만, 두 논문 모두 비교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다. 두 논문 모두 급진 이슬람 운동을 사회운동 이론을 바탕으로 비교연구한 것으로 급진 이슬람 운동이라는 매우 생소한 운동을 연구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급진 이슬람 운동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두 국가의 이슬람 운동 잠재력을 비교, 연구한 것은 지역연구의 바람직한 또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4장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과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 비교연구”에서 김태연 박사는 중앙아시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대표적인 두 조직, 즉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과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의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구조, 프레이밍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소련 말기 두 조직 공히 국제정치적 기회구조는 이전 시기보다 열린 구조로서 서로 유사한 조건을 갖게 되었지만,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닫힌 국내정치적 기회구조와 열린 국제정치적 기회구조에,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은 열린 성격과 닫힌 성격을 모두 갖는 국내 및 국제정치적 기회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두 조직 공히 주요 동원 구조는 비공식적인 초국적, 지역적 네트워크라는 유사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의 동원구조가 보다 다변화된 것이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채택한 프레임은 포괄적이지만 경직된 극단적 대립 프레임이었다면,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이 채택한 프레임은 포괄성과 유연성을 모두 나타낸 것이었지만, 동시에 온건주의와 급진주의를 오가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었다.

이어서 저자는 5장 “포스트 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이슬람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급진 이슬람 운동이 유의미한 사회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급진 이슬람 운동의 출현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조적 조건을 고찰한다.

저자는 두 나라의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과 관계되는 사회구조적 조건은 지역적 경제격차와 민족갈등을 통해 나타나는 지역 균열 구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의 급진 이슬람 운동의 동원 잠재력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범주로서 사회운동이 처한 환경 혹은 맥락을 의미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담론적 기회구조를 살펴본다. 이때 급진 이슬람 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로는 이슬람의 정치체제 접근성과 국가의 급진 이슬람 운동에 대한 억압이, 담론적 기회구조로는 이슬람에 관한 정권의 담론과 대중의 인식 등이 있다.

두 논문은 주제는 다르지만, 공히 특정한 이론적 틀 속에서 각각 두 나라의 조직 혹은 두 나라의 운동에 대해 비교 연구를 수행했기에 그 자체로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교를 통해서만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갖는 독특한 특성을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징들로부터 구분해 낼 수 있다는 비교연구의 기본 목적에서 보았을 때 두 논문 공히 내용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부분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이나 차별성 간의 긴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일정한 경향성이나 상관관계들이 드러나지 않아 비교 연구의 의의가 다소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가령 무엇보다 저자 스스로도 밝혔듯이 명료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많다. 비교 연구라는 장점이 무색하게도 차이점 부분에 대한 해설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온건주의/급진주의 프레임의 변화도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의 온건화와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의 급진화 등 두 조직의 변화 설명의 틀은 별도로 더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논문의 경우에도 키르기스스탄 내에는 우즈베크 민족 집단이라는 문제가 지역과 경제적 차이라는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 사회구조적 조건이나 정치적 기회구조, 담론적 기회구조 부분은 그 틀 속에서 다시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발견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저자의 발견은 아니지만 우리는 두 논문 모두에서 민중 속 깊이가 자리 잡은 민족 단위의 세속주의적 민족주의가 이슬람주의적 경향의 정치 세력의 확산을 일정 정도 제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그 뒤로 이어지는 6장과 7장은 저자도 주제도 다르지만 카자흐스탄 사회의 미시적인 생활 세계, 그중에서도 이슬람과 관련한 중요한 미시사회적 변화들의 특징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논문 모두 소련 붕괴 이후 등장한 젊은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 특히 비록 가장 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고 이슬람적 요소가 약한 카자흐스탄의 사례이긴 하지만, 두 논문 역시 공히 사회 내에서의 이슬람의 부흥이 민족주의적 논리 속에서 제약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6장 “현대 카자흐스탄의 생활이슬람의 양상과 전망: 청년 무슬림의 종교 의식과 활동을 중심으로”에서 오원교 박사는 현대 카자흐스탄의 생활 이슬람의 양상과 전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러 번 강조되었던 것처럼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이 공통적인 과제로 대두했다. 이를 위해 역사적 과거에 대한 청산으로 상징되는 탈러시아화와 동시에 민족의식의 바탕인 전통 문화의 복원과 계승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이슬람의 부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러한 부흥을 정치적인 영역이 아닌 카자흐 청년 무슬림들의 종교 의식이나 종교성의 실상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평가의 점증적 확산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들을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세대적 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청년 무슬림들의 종교 의식과 활동 속에서 표출되는 경향들, 즉 종교적 최소주의, 이슬람의 내면화, 종교 의식의 피상성, 독특한 혼합주의, 신앙과 민족의 상호결정성, 그리고 종교적 급진주의와 테러리즘의 영향 등을 매우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어서 7장 “공립학교 히잡 착용 논쟁을 통해 본 현대 카자흐스탄 이슬람”에서 최아영 박사는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카자흐스탄의 공립학교에서 히잡 착용이 금지되고 종교적 색채가 배제된 교복 착용이 의무화된 과정과 원인을 분석

하고, 카자흐 무슬림들, 정부, 그리고 카자흐스탄 무슬림 종무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공립학교 내 히잡 착용 금지 찬반 논쟁과 담론 생산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교내 히잡 착용 금지 논쟁을 통해 우리는 카자흐스탄(지배엘리트)이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역할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범주화하는 논리를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히잡 논쟁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민들 내 세대 간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매우 흥미롭게도 히잡 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10대 여학생과 여대생, 그리고 10대 자녀를 둔 젊은 학부모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독립 이후 태어났거나 혹은 독립 시기에 사회화 과정을 거친 소위 독립 1세대들이다. 이는 곧 이슬람을 통해 자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젊은 카자흐인들과 소련식 정교분리, 공식-비공식 이슬람의 구분 짓기의 원칙에 익숙한 소비에트 세대 간의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글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저자에 의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즉 교내 히잡 착용 금지 이슈가 종교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서 민족주의적 수사들이 논의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히잡 착용은 카자흐의 자연지리나 전통에서는 낯선 아랍지역 민족들의 습관이며,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인 살라피스트들의 옷으로 해석하면서 이는 카자흐인의 전통에 맞지 않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이 추구하는 세속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히잡 착용 찬성론자들은 이는 카자흐 전통이나 세속주의가 아니라 소련식 무신론주의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해 프랑스 등 서구 기독교 문명 지역 선진 국가들에서의 유사한 갈등과 논쟁들과의 차이점도 드러내는 등 매우 유익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두 논문 모두 권위주의 국가의 강한 이슬람 통제와 충돌하는 사회 내 세력들, 즉 아래로부터 혹은 특정 세대, 여성 일부의 이슬람 지향성과 무슬림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세속적이고 온건한 이슬람 전통이 강한 카자흐스탄에서, 그것도 청년층, 여성들의 이슬람의 확산 문제를 살펴본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오히려 소련 시대보다 훨씬 더 개방된 사회에서 청년과 여성들이 이슬람적 가치를 되찾고자 하는 현상

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IV. 이슬람과 경제: 대안적 금융과 산업 연구

3부에서는 비록 한 저자의 논문이기는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 이슬람의 영향을 보여 주는 두 편의 논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동안 주류를 이루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거대 담론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관심이 학문적으로도 실물 경제적 이익에 입각한 분야 연구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슬람과 관련한 경제 영역 중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지만 반드시 이해가 필요한 두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먼저 8장 “중앙아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 조영관 박사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그러나 이슬람권뿐 아니라 세계 경제계에서는 이미 관심의 대상이 된 지 오래인 이슬람 금융, 그리고 그것이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저자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 금융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 인프라와 사회 부문에 대한 투자 및 개발 수요와 연관되어 있고, 정부의 이슬람 정책과도 연관되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추구하고 있는 석유 부국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도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발전이 가장 유망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슬람 금융이 가장 발달된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미 2008년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카자흐스탄 최초로 이슬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이슬람 금융위원회(ADIF)’가 설립된 바 있다. 이후 2012년 3월에는 ‘2020년까지의 이슬람 금융 발전방안’이 수립됨으로써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제도가 수립되어 본격적인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2015년 외국인 투자 부진 등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샤리아 원칙에 따라 이슬람 보험, 리스, 예금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 8월에 구소련 지역에서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개발은행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의 협력으로 수쿠크를 발행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향후 이 지역에서의 이슬람 금융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직은 카자흐스탄 외 국가들에서는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금융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며, 각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9장 “중앙아시아 할랄 산업의 발전과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 그는 이어서 이슬람권 이외의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할랄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중앙아시아에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할랄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세계 이슬람권에 자국의 식료품, 육류 등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낙후된 이들 지역 국가 경제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산업분야다. 그러나 높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할랄 산업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정도로서 발전에 있어서 초기 단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할랄 산업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카자흐스탄이 가장 앞서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일찍이 1995년 이슬람국가기구(OIC)에 가입하여 이슬람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러한 결과 2006년에는 할랄 인증기관인 ‘카자흐스탄 할랄 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국제 할랄 인증기관의 지원으로 할랄 인증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할랄 산업 자체의 발전도 동시에 추진되어 2005년 단지 8개에 불과했던 할랄 식품 생산 기업의 수가 2014년에는 무려 600개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카자흐스탄의 식료품 시장에서 할랄 산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가령 육류의 약 30%는 할랄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할랄 식품 인증제도, 할랄 식품 생산 시설 등에 있어서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에 의하면, 중앙아시아 각 국가 정부들은 할랄 산업의 발전을 통해 다른 제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국 제품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

한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슬람과 관련성이 있는 실물 경제 영역의 문제이면서도 그동안 다른 거시경제적 문제에 가려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경제 논문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중앙아시아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한국과 관련하여서도 이슬람권과 관련된 금융 경제 협력이 필요한 분야 혹은 대안적 신규 유망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이슬람 문화권 출신 이민자들과의 공존을 위한 하나의 대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를 선정했 듯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두 영역 모두 카자흐스탄에서만 일정정도 발전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나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V. 결론

지역연구는 성격상 어떤 특정 학문이 독점하기보다는 여러 학문이 연계되어 통합학문적, 학문융합적, 그리고 다학문적 학제 간 접근을 지향할 때만이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연구가 고유한 이론과 접근법에 입각한 학문인가에 대한 비판도 있고, 실제로 학문내용상의 교류와 분과학문 간 상호수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사회과학의 지적 분업과 교류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비서구지역에 관한 연구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존의 특정 학문적 접근법만으로는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제 공동 작업에 근거한 지역연구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공동의 학제 간 연구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이해도가 낮았던 이 지역의 특수성,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과 독특한 이슬람 전통을 가진 중앙아시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너무나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서

는 일단 이슬람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일정 정도의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슬람이 공산주의와 대립적이며 자본주의와 친화적이라는 관점은 편견이라는 서론에서의 논쟁적인 주장은 정작 논문들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책의 새로운 발견인 민족주의의 이슬람 제약 역할의 근원이 바로 사회주의(공산주의) 시절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추후 이와 연관된 연구가 진행되어 또 다른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물론 이슬람이라는 주제만으로 한정해 보더라도 본서 역시 이슬람의 각 지역과 국가에서의 다양한 모습보다는 다소 정치 혹은 정치와 연관된 사회운동과 관련된 연구가 중심적이라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연구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간섭 정도가 높아 객관적 자료 수집이나 현지 조사 연구 등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자율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서의 주제들만으로도 이미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이슬람의 틀 속에서도 중국 위구르인들의 운동은 이슬람주의 운동이 아니라 분리 독립 운동적 성격이 훨씬 강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의 조직들은 부패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지역들에서 사회복지기구의 역할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지방 단위에서도 이슬람 조직들은 급진주의 조직이 아니라 민주화를 갈망하는 민족주의적인 운동인 경우나 사회복지기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이슬람의 틀 속에서 혹은 그 틀을 벗어나 (여성, 아동)인권, 환경, 지역발전 등을 도모하는 다양한 풀뿌리 운동의 맹아적 형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향후 저항과 보수성으로 상징되는 것이 아닌 이슬람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이어져서 독보적 연구성과물들을 축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보편적 복지 국가, 프레카리아트, 기본소득, 기후 위기와 그린 뉴딜 등등 진보적인 새로운 담론들과 정책 제안과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구는 물론 중남미, 중동부유럽, 동남아 등등 여타 지역들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 타파 논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혹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 세력 등장 문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의 활동, 이주와 인종 차별, 극우 세력 문제, 환경

과 개발 문제, 초국적 기업과 노동 문제, 빈곤 타파와 ODA 등등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연구 주제들이 지역연구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를 흥미 있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현지 조사도 용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역사나 문화 영역에서의 연구는 제약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훌륭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 지역 연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와 관련한 연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면에서 연구의 흥미를 잃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본 서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연구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국제정치경제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원에서의 중앙아시아 연구의 발전도 한 단계 도약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앙아시아 사회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고 다양한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 핵심적 주제 선정, 이슬람이라는 공통 주제하 연구, 다양한 학문과 연구영역의 종합, 법치정립적 연구와 비교연구의 시도 등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본서의 중앙아시아 지역연구 발전에 기여도는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많은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슬람과 관련된 이 지역 연구에서의 새로운 발견들을 독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출간된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서적과 함께 본서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획기적이고 독보적인 기획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